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성경: 룻기 4장 13-17절

Tag:

13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 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4:13-17)

오늘 우리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두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란 여인이 살았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이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말론과 기론이었다.(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들자 이 가족은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다. 부동산을 처분하자 든든한 밑천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의기도 양양하게 모압으로 가서 아마도 보란 듯이 살았을 것이다. 두 아들에게도 고르고 고른 신부감,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다. 성경에서는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다만 말론(병약한 자)은 아마 병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기론(열정적인 자)은 무언가를 탐닉했든지, 아니면 혈기가 왕성해서 패싸움에 휘말렸든지 해서 그리 기념할만한 일들이 아니었던 것 같다.

성경학자들은 나오미네 가정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으나,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게 되어서 결국에는 몰락에까지 이르게 되었지 않나 생각된다.

성경학자 토마스 풀러는 나오미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객이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진정 욕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이다”

아무튼 나오미 자신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하였다.

여호와와 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13)

나오미는 죽은 자들이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나 그 비슷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며, 두 며느리 또한 자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

나오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 우리는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선 나오미가 담달해서

모습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에 베들레헴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나오미는 재빨리 부동산을 처리하고 이주했다. 그러나 섣부른 이주는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끼쳤다. 그녀는 동족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함께 힘을 합해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도전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에게 물려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돈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 3명의 남자들이 과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릿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잘못된 판단이 10년을 허송하게 하였고, 또 3명의 남자들이 단명하게 되는 핑계를 제공하였다. (간접원인)

조심스러운 판단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며느리 릿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세속적 가치관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오미도 속으로 갈등했는지 모른다. 릿은 놓치고 싶지 않으나 오르바까지 데리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서로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릿이 너무 어머니를 잘 섬기는 편이어서 오르바는 섣불리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선수를 쳤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나는 이미 늙었으니 속히 가서 새로운 남편을 얻도록 하라고 하였다. 내가 너희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어찌보면 쿨한 시어미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이다. 내심으로는 릿은 붙잡고 오르바는 떠나보내려는 심리가 작용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오르바는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떠났으나, 늙은 시어미와 젊은 며느리가 남게 되었는데 속된 말로 가장 처량하기 짝이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손자라도 있다면 두 여인에게 사명과 소망이 있었을 것이다. 재산이라도 남겨진 것이 있다면 힘이 되고 안심이 되었을 것이다.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이 두 사람을 맺어준 것은 과연 무엇이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심이었다.

나오미는 가슴 깊이 하나님께 사죄하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임한 여러 가지 불행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 만약 나오미가 당시에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면 회개하는 마음 대신에 원망과 독이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신세타령으로 알콜중독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녀는 핑계를 대지도 않았다. 세월을 탓하지도 않았다. 경기를 탓하지도 않았다. 흉년을 탓하지도 않았다. 남편이나 아들들에게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렸다. 이주의 잘못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들이 단명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로 인해서 두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남겨진 며느리에게 최후의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선한 말과 덕이 베풀어지고 상대방 또한 마음에 경계심을 풀게 되고 그러면 그도 상대방을 향해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룻이 나오미의 가정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신앙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만큼

은 룯이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밖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룯은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룯은 동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린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선택하였고, 경건하지 않는 세속문화를 버린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나오미를 감동시켰고, 베들레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켰다.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더 큰 힘이 생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나 가난한 두 사람이 신앙심으로 뭉치고, 사랑으로 뭉치고, 선한 가치관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누구 못지않을 추진력과 협력과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돈 있고 힘있는 두사람이 뭉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다.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고, 신뢰의 힘이고, 신념의 힘이고, 가치의 힘이다.

더군다나 나오미와 룯은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과 함께 하였다는 뜻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낙제된 인생들이고, 저주가 베풀어진 다음에 남겨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둘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님의 지혜가 작용하게 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언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룯 앞에 갑작스럽게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룯

의 모든 복을 회복시켜준다. 보아스는 말년에 젊은 아내를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깃들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기적이다.

이런 일들이 여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복음의 기본 회복하기 성경: 마가복음 1장 4-15절

Tag:

4-5절; 회개 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함

-죄를 자복함(죄를 인정함)

8.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

11.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13. 광야에서 시험을 받음.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남.

15.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